

# 곡성 대표음식 자리매김 '들깨토란탕'

### '곡성토란 향토사업단' 가공식품 개발 소득 창출 토란주재료 관내 음식점서 직접 레시피 개발 판매

'흙 속의 보물' 토란이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곡성에서 주로 재배되어 농민들의 고소득 작목이자, 곡성의 대표음식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곡성군은 농촌의 효자 작목인 토란의 최대 주산지인 토란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2016년도부터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곡성토란 향토사업단'을 운영하며 활기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업은 '토란음식 개발 및 보급활성화 지원'으로 토란을 주재료로 한 토란을

식용 곡성 군민과 곡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음식점에서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여 영암민점의 토란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토란빵과 쿠키를 굽는 모짜르트 제과점, 토란버블티와 토란스콘을 맛볼 수 있는 B's 커피숍, 농가맛집의 특징을 살려 토란전병과 토란찜을 고급스럽게 차려내는 (썬)기실란 농가맛집 반하다. 곡성 하행선에 위치하여 곡성의 특징을 살리고자 토란대육개장을 선보이고 있는 (썬)기다리식품 곡성 고속도로 휴게소, 브랜드 한



우와 친환경 토란으로 고소한 맛을 담은 곡성축협 명품관의 들깨토란탕까지 올봄에 선보이기 시작한 토란 메뉴들이 반년이 채 되지 않아 SNS와 관광객, 지역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곡성의 대표 인기 음식으로 부상했다.

특히 곡성축협 명품관의 들깨토란탕은 들깨 특유의 고소함과 양이 푸짐한 한우와 토란 때문에 예

상을 뛰어넘는 인기 판매가 지속되어, 친환경 간토란의 소진으로 인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동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올해토란이 수확되는 8월말쯤이면 들깨토란탕을 다시 맛볼 수 있으며, 내년에는 계약재배와 충분한 수확확보로 연중 판매할 계획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강진군의 농업 2세와 서비스업 2세들이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떠났다.

## 백년 잇는 기업으로 농촌 미래 밝힌다

### 강진군 농업·서비스업 기업 2세 일본 성공 사례 탐방

농촌소멸의 위기를 지역 청년들이 꿈쳐 해결을 모색하는 지자체가 있어 화제다.

남도담사 1번지라 불리는 강진군의 농업 2세와 서비스업 2세들이 지난 2월 가업 2세 모임을 조직한데 이어 일본의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나서며 등 청년층이 주도하는 지역 살리기에 나섰다.

의 유자, 축, 말린 표고버섯 등을 활용해 서비스업 기업 2세들의 큰 눈길을 끌었다.

다강 한정식의 김현정씨는 "역사가 서린 건물에서 지역의 토종음식을 활용한 특색있는 음식들이 남도한정식으로 유명한 강진에 적용하기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 강진 한정식의 전통은 살리고 새로운 메뉴를 살리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강진군의 기업 2세 모임은 농업인 후계자들의 모임인 나와농(나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과 서비스업 후계자들의 모임인 강이회(강진군 기업 2세 모임)를 결성했다.

푸소체험과 농촌체험을 활용한 농업 모델을 만들고 있는 농업 기업 2세들은 지역의 자연지역을 활용한 아카타 블루베리 농장의 체험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모임 결성에 이어 일본의 성공사례를 통해 강진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31명의 회원은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요나고일원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 2세 현장을 둘러, 전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며 기업 2세들의 전통을 배웠다.

특히 300년의 기업을 잇는 돗토리 도지가 계승자 인큐베이터에서는 오랜 역사를 잇는 방식과 기업의 성공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며, 백년을 잇는 기업 2세의 미래 비전을 논했다.

세이시안 지역의 메이저 시대 고층스러운 건물을 활용하며 100년 이상의 전통 떡을 만드는 모찌 사브사브 전문점, 1764년 에도시대 중기부터 도자기 기업을 계승하고 있는 돗토리 인큐베이터, 다이센 국립공원의 자연을 활용해 블루베리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아카타 블루베리 농원을 방문했다.

나이농 최상훈 회장은 "매월 1회 모임을 가지며 정보를 공유하며, 점점 더 청년층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모두 비싼 시기였지만 뜻을 모아 추진한 일본 견학이 강진의 청년 기업 2세 성공에 큰 바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모찌 사브사브 전문점에서 지역

강진=최제영 기자



## 영암군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안전하게"

### 3일간 지정 문화재 50개소 일제 점검...기상이변 등 문화유산 보호

영암군은 지난 7월 5일부터 3일간 지정 문화재 50개소를 일제 점검하였다. 여름철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기상이변 등으로 부터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점검은 국보 제60호 해탈문을 비롯해서 영보정, 왕인박사유적지, 미암 선덕대화비 등 목조 및 석조 문화재의 누수, 균열, 이완, 탈락 등을 점검하였고, 강우에 대비해 고분군의 배수로, 안거 등 배수시설의 파손 응급복구, 퇴적물도 제거하였다.

특히, 현재 보수중인 남해당지 문

화재에 대해서도 현장의 비계나 덧집, 지체 적체 상태 등을 특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였다.

또한, 지난 가을기간 동안 문화재 주변에서 발생한 고사목 및 고사지를 정리하고, 제초작업, 환경정화 등 문화재 주변 환경도 개선하여 여름 행락철 우리군 문화재 관람을 위해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위해 군과 관리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강원훈 기자

## 목포시, 中 주산시와 우호교류

### 협력에 관한 의향서 체결 완료

#### 한중 카페리 항로 개설, 항만 국제활성화 등 상호 노력

목포시가 중국 주산시와 우호교류에 돌고 돌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7일 오전 주산시장에서 주산시와 국제우호교류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해 상호 신뢰와 우호교류의 바탕 위에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박홍률 시장과 목포시의회 김귀선 관공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주창선 의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 6일 오후 주산에 도착해 주산 종합보세구 및 항만을 시찰했다.

절강성에서 위치한 주산시는 1,3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구 120만 명의 도시로서 '중국 해산물의 수도'라 불리며, 중국 4대 불교명산인 보타산으로도 유명하다.

선박수리 제조, 수산물 가공, 제염업 등이 발달하고 항만이 활성화된 도시라는 점에서 목포시와 유사점이 많아 이번 의향 체결을 계기로 한중 카페리 항로 개설, 항만물류 활성화,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기대된다.

한편 방문단은 5일과 7일 중국 거대 도시인 상해지하철의 절강성 항주 지역에서 여유국 상무청과 연계해 여행업·엔터테인먼트, 수산물 가공업·무역업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문단은 목포의 주요 관광상품, 해상케이블카, 대양산단 투자여건 등을 홍보했다. 또 주요 수출품을 전시·홍보하는 등 목포가 투자의 적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또한 박 시장은 절강성 항주시 소재 절강재경대학교에서 금융단과 대학 조빙객좌교수로 위촉받고, 현지 교수, 대학원생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최신 경제동향 및 지방경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박홍률 시장은 "주산시와 의향서 체결을 발판삼아 앞으로 한중 국제 항로를 개설해 지역 수출입체 판로가 개척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으로 관광·투자유치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해남군 친환경쌀, 서울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

해남군 친환경 쌀이 서울시 성동구 학교급식에 선정됐다.

해남군 땅끝환경친환경영농조합 법인의 땅끝에서 보낸다 브랜드 쌀은 지난 4일 열린 최종 품평회를 통해 성동구에 급식용 쌀을 공급하게 될 업체로 선정됐다.

땅끝환경친환경은 최종 선정된 3개의 업체와 함께 성동구내 36개

초중고교에 1년 6개월간 각 75톤 가량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된다.

땅끝환경친환경영농조합인은 해남 지역 내 100여 친환경 쌀 재배 농가로부터 계약재배 후 매입한 벼를 원료로 가공, 유통하는 친환경쌀 전문 도정·유통 업체로 광주, 제주 등 전국 학교에 연간 약 600여톤의 친환경 쌀을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복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여수 010-6661-6669		
구례 010-2325-8439	영광 010-3611-3081		
나주 010-3625-6665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61-552-5005		
목포 010-7344-0200	장성 010-5287-7711		
하당 010-5508-3830	장흥 061-862-7787		
무안 010-5234-2313	진도 010-3081-5203		
보성 061-853-9125	함평 011-641-3189		
순천 010-2300-9083	화순 010-2077-6464		
광양 010-5604-6981	고흥 010-4656-6293		
해남 010-8600-2768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